

중국의 최근 북한지역 개발 동향과 향후전망

김 주 영*

- I. 중국의 북한 자원개발과 지역개발 동향
- II. 중국의 북한 자원개발과 지역개발 참여 배경
- III. 한국의 최근 대북 경제협력 동향
- IV. 향후 전망

I. 중국의 북한 자원개발과 지역개발 동향

□ 철광석, 무연탄, 동광 등 자원개발에 적극적이며 주로 국유기업이 주도

- 중국 국유기업인 우광그룹(五礦集團)이 2005년에 북한 최대 무연탄 광산인 평안북도 용등에서 연산 100만 톤 무연탄 개발 참여
- 산둥성(山東省) 국유기업인 귀다황진(山東國大黃金冶煉公司)이 2006년에 북한 최대 동광산인 양강도 혜산의 동광 개발권을 800만 유로를 투자하여 25년 동안 확보
- 지린성(吉林省) 국유기업인 통화철강(通化鋼鐵集團) 등이 2007년에 북한 최대 노천 탄광인 함경북도 무산 철광석 개발권을 50년간 확보
- 총 투자 70억 위안 중 20억 위안은 광산까지의 도로 건설에 사용

*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조사역

□ 해상수송로 확보와 시장개척을 위한 지역개발 등의 진출 움직임도 활발

- 2003년 10월 중국정부는 동북지역(遼寧省, 吉林省, 黑龍江省)의 노후공업지역 진흥 계획을 발표(〈표 3〉참조). 동 내용에 동북지역에서 동해로의 해상수송로 건설도 추진
- 2005년 7월에 훈춘시(琿春市) 2개 기업(東林經貿有限公司·邊境經濟合作區保稅有限公司)이 나선시 인민위원회 경제합작회와(지분 50대 50) 총 투자금 1억 3,000만 유로의 나선국제물류합영공사 설립 계약 체결. 동 계약에는 나진항 제1부두의 50년 사용권 확보와 훈춘 - 나진항을 연결(93km)하는 도로 건설도 포함¹⁾

〈표 1〉 중국의 북한 주요 자원개발투자와 지역개발 접근 동향

	주요 내용	비 고
2005. 7	훈춘시 2개 기업(東林經貿有限公司·邊境經濟合作區保稅有限公司)의 나선시 인민위원회 경제합작회와 지분 50대 50의 나선국제물류합영공사 설립 계약	중국정부 미 인가
2005	우광그룹(五礦集團)의 평안북도 용등 무연탄 개발(연산 100만톤)	북한 제1의 무연탄 광산
2005. 12	북·중의 '해상 석유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체결	서한만 석유 개발
2006	궈다황진(山東國大黃金冶煉公司)의 25년간 양강도 해산 동광 개발권 확보(중국 측 투자 800만 유로, 지분 50%)	북한 최대 동광산
2007. 10	통화철강(通化鋼鐵集團) 등의 50년간 함경북도 무산 철광석 개발권 확보: 총 투자 70억 위안	아시아 최대 노천광
2008. 8	다롄(大連) 창리그룹(創立集團)의 10년간 북한 나진항 사용권 획득	
2009. 10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북한 방문 시에 압록강대교 건설과 나진항 사용권에 대한 복측 동의 확보	
2010. 1	옌벤조선족자치주정부의 북한 원정리-나진항 연결 도로 건설을 금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	
2010. 2	단둥화상(丹東華商海外投資有限公司)이 평안북도 위화도와 황금평을 각각 5억 달러와 3억 달러를 투자하여 자유무역지대로 개발 추진	중국 외교부: UN재제 불위배
2010. 6	훈춘의 취안허와 은덕군 원정리를 잇는 교량 보수공사 완료	

자료: 중국 신화사 등

1) 동 사업은 중국정부의 미인가로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한편, 2007년 러시아는 북한의 나진항과 핫산항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은 물론 나진항 제3부두와 신규 건설하게 될 제4 부두 사용권 확보

- 2009년 10월 중국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북한 방문 시에 북측으로부터 압록강 대교 건설과 나진항 사용권에 대한 동의 확보
 - 중국 동북지역 주민들은 나진항 사용권 획득으로 동해로 진출할 수 있는 ‘꿈이 실현’ 됐다고 환호
 - 이에 앞서 다렌(대련) 창리그룹(創立集團)이 2008년 8월에 북한 나진항 10년 사용권을 획득하는 한편, 북한의 원정리와 나진항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사업권도 획득
- 이후 엔벤조선족자치주정부²⁾가 2010년 1월 북한 원정리 - 나진항 연결 도로 건설을 금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북한 청진항의 종합적인 이용은 물론 러시아, 북한과의 국제철도운송 등의 프로젝트를 두먼시의 중점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 발표
 - 금년 3월 훈춘시정부가 1936년에 건설된 훈춘의 취안허(圈河)와 북한 은덕군 원정리를 연결하는 교량의 보수작업을 착공하여 금년 6월 초에 완공³⁾
- 또한 2010년 2월 단둥화상(丹東華商海外投資有限公司)⁴⁾이 평안북도 위화도와 황금평⁵⁾을 각각 5억 달러와 3억 달러를 투자하여 자유무역지대로 개발기로 북한과 합의
 - 단둥화상의 합의 보도 전에 단둥웨이민(丹東偉民國際商貿有限責任公司)이 황금평을, 랴오닝웨이화다오(遼寧威化島投資有限公司) 등이 위화도를 개발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 그러나 이들 기업은 민간기업으로 자금조달 한계로 인해 중국이나 외국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에 치중
 - 중국은 금년 10월에 차량과 기차가 운행할 수 있는 신 압록강 대교 건설에 170억 위안 (약 3조 600억 원)을 투입하여 3년 후에 완공 예정

2) 엔벤조선족자치주는 면적 4.3만 km², 인구 218만명으로 6개시(延吉, 琿春, 圖們, 龍井, 和龍, 敦化)와 2개현(汪清, 安圖)으로 구성. 이 가운데 조선족 인구가 82만 명으로 37.6%에 불과하며 한족은 59.3% 차지

3) 교량 보수작업을 위한 2009년 11월 창리그룹과 북한의 나선강성무역회사 간의 계약에 이어 같은 해 12월 훈춘시정부와 나선시정부 간의 교량보수 협의에 서명

4) 단둥화상은 중국정부 인가로 설립된 사단법인 성격의 중국기업가연합회(中國企業家聯誼會)의 대북실무위원회(對朝工作委員會)와 단둥시의 북한경제 건설센터(丹東市朝鮮半島經濟諮詢服務中心)가 공동으로 설립. 기능은 중국 기업의 북한진출에 대한 자문은 물론 북한정부의 합작프로젝트, 무역 및 관련 정책정보 등을 중국 및 해외기업에게 제공

5) 위화도는 압록강 철교 상류인 신의주시 상단리와 하단리에 붙은 면적 12.2km이며, 황금평은 단둥 신도시가 건설 중인 랑터우(浪頭)와 철조망 하나를 두고 맞붙어 있는 면적 11.45km의 섬

〈표 2〉 중국 동북지역 개발관련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비 고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원이 훈춘(琿春)시를 변경경제합작구, 변경개방도시, 수출가공구로 지정 • 지린(吉林)성이 투먼(圖們)시를 경제개발구로 지정 	
200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원의 동북 노후공업지역 진흥계획 발표: 동 내용에 동해를 통한 해상수송로 건설도 포함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린(吉林)성의 옌지·룽징·투먼(延吉-龍井-圖們)시 통합 추진: 2020년까지 완료 	
200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룽-바이허(和龍-白河) 철도 개통 	東邊道 철도
2009.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원의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발전계획 인가 	
2009.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먼장(圖們江)지역 합작개발 요강 - 창춘·지린·투먼장(長春-吉林-圖們江)을 개발과 개방의 선도구’로 지정: 2020년까지 개발 완료 	

자료: 중국 신화사 등

Ⅱ. 중국의 북한 자원개발과 지역개발 참여 배경

□ 동북지역 진흥계획 등의 추진으로 인한 자원 확보 필요성 증가

- 발전설비, 자동차, 선박, 철도차량, 공작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자본재 생산기지의 육성에 따른 자원 수요 증가
 - 중국기업의 북한에 대한 자원개발 투자는 2009년 중반까지 20개 사업으로 외국기업의 북한 자원개발 총투자 25개 중의 80% 차지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중국의 실제 북한투자는 9,585만 달러
 - 1991년에 지정된 나선자유경제무역지대의 주요 투자자는 중국, 홍콩, 태국, 싱가포르 등이며, 이 가운데 중국이 전체 투자 건수의 80% 차지

〈표 3〉 중국 동북의 노후공업지역 진흥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시기) 2003~2020년 ○ (대상지역) 랴오닝성(遼寧省),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 (발전목표) 2020년에 중국은 물론 세계적인 자본재 생산기지, 특히 대형 설비 생산기지로의 부상을 통해 공업 생산액을 상하이(上海)를 중심으로 한 창장(長江)삼각주, 광둥(廣東)을 중심으로 한 주장(珠江)삼각주에 이은 제3위로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설비, 자동차, 선박, 철도차량, 공작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발전 가속과 함께 이들 산업의 클러스터 추진 ○ (발전 원칙): 개혁개방의 심화를 동북지역 진흥의 동력으로 시장경제체제 구축을 통한 자원 배분, 구조조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동북지역 진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시장경제체제 구축과 대외개방 확대, 특히 동해로의 해상수송로 확보를 관건으로 판단 <p>※ 중국정부가 1979년에 추진한 동부 연해지역 중심의 대외개방과 개발로 인한 지역격차 확대의 해소를 위해 2000년에 서부지역 대개발을, 2003년에 노후 공업지역인 동북지역 진흥계획을, 그리고 2005년에 중부 지역 도약을 추진하면서 전국으로 지역개발 확대 실시</p>

□ 창지투 개발 등을 통한 두만강 유역 개발의 촉매제 역할과 함께 동해로의 해상수송로 확보 목적

- 중국의 창춘·지린·투먼장(長春-吉林-圖們江: 창지투) 개발과 옌지·룽징·투먼(延吉-龍井-圖們: 옌룽투)의 시장 통합화를 통한 개발로 UN이 추진하는 두만강 유역의 중국, 북한, 러시아의 삼국 접경지역 개발 동력 제공
 - 개발 촉진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의 창지투 개발과 병행하여 지린성정부는 옌룽투의 통합시 추진으로 현재 81만 명 수준(옌지 49만 명, 룽징 19만 명, 투먼 13만 명 등)의 3개 도시를 2020년에 인구 2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 육성 방침
- 동 개발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는 동해로의 해상수송로 확보임. 다른 아닌 창지투의 개방 선도구 역할과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북한 나진항으로의 육상통로를 확보하는 것
 - 동해를 이용하지 않고 일본으로 운송하는데, 창춘 등지에서 철도를 통해 단둥이나 다롄을 통한 해상운송에 3~4일이 소요되지만, 나진항을 통할 경우 10시간 남짓이면 운송 가능

〈표 4〉 중국의 두만강 유역의 합작개발 요강

- (추진시기) 2009~2020년
- (대상지역) 지린성의 창춘·지린의 일부와 옌벤(延邊)조선족자치주 전부 및 두만강 유역(면적 7.3만km², 인구 1,090만 명으로 각각 지린성의 38.9%, 39.8% 차지)
- (발전목표) 대외개방 확대 등을 통해 경제발전이 2020년에 전국 수위 수준(2008년 역내 GDP 3,640억 위안 대비 4배 이상 증가 목표)
- (개발 방향) 동북지역의 신 성장 축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창춘-지린을 경제발전 성장축(자동차, 석유 화학, 철도차량, 농산물 가공 등)으로, 옌지-룽징-투먼을 경제발전 전초기지(두만강 지역의 물류 거점 및 국제산업 협력기지)로, 훈춘을 대외창구(수출가공구, 변경경제협력구 등을 통한 변경무역기지)로 활용
 - 특히 인프라 확충을 통한 대외교류 창구 확보와 함께 국제 경제협력기지 건설

- 중국정부는 2012년까지 동해로의 해상수송로 확보 실현을 목표
 - 현재 지린성 훈춘-러시아 자루비노-속초로의 항로를 한국의 동춘항운이 운항 중

〈표 5〉 UNDP의 두만강개발 계획

- (개발목적) UNDP가 1992년에 한·중·러·북·몽의 5개국과 함께 북한의 청진, 중국의 옌벤(延邊), 러시아의 나홋카를 연결(소삼각)하는 두만강 유역을 교통·에너지·관광·환경 등 분야의 개발과 관련, 다자간 경제협력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보고 개발 추진
- (추진 경과) 1995년 9월에 5개국 정부가 '5개국 위원회협정'(Consultative Commission) 체결 및 연 1회 위원회 개최 원칙 합의
 - 동 위원회는 2005년 12월(8차 회의)에 소삼각개발을 광역두만강개발(Greater Tumen Initiative: GTI)로 전환 합의
 - GTI 대상지역: 중국의 동북3성과 내몽고, 북한의 나선특별시, 몽골의 동부, 러시아의 연해주 일부, 한국의 동해안 항구도시
- (개발 부진) 정부간 협정에도 불구하고 두만강개발이 부진한 데에는 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으로 인한 이 지역의 안보적 긴장상황 지속, ② 정치적 이유로 두만강 개발 중심지역의 하나인 나선지역에 대한 외국 기업의 참여 주저, ③ 옌벤이나 나선지역에 대한 해당국가의 투자 부진으로 투자환경 개선 미흡 등에 기인

□ 대북제재⁶⁾를 활용하여 다른 나라에 앞서 북한시장 선점 의도

- 북한의 폐쇄적 체제와 UN의 대북제재 등으로 북한의 교역, 투자 등 분야에서 중국과의 교류가 높은 비중을 차지
 - 2008년 북한의 전체 교역액 56.4억 달러 가운데 중국이 49.4%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7.7% 포인트 증가한 반면, 한국은 32.3%로 전년대비 5.6% 포인트 감소
- 중국이 교통, 통신, 전력, 수리 등 인프라 부문 건설에 강점이 있는데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서구 등 다른 나라 기업이 진출할 수 없어 이들 분야에 무혈입성 가능
 - UN 결의안 1874호는 무상원조와 금융지원, 차관 신규 계약 등의 금지 및 기존 계약 감축도 실시. 다만 북한 주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인도주의 및 개발 용도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의 제한 대상에서 제외
- 또한 중국정부가 자원 다소비, 고오염, 저부가가치 제품 산업에 대한 수출입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이들 산업의 북한으로의 이전도 모색

〈표 6〉 라오닝의 연해경제벨트 개발계획⁷⁾

- (추진시기) 2009~2020년
- (대상지역) 라오닝성의 후루다오(葫蘆島), 진저우(錦州), 판진(盤錦), 잉커우(營口), 다롄(大連), 단둥(丹東)의 6개시 관할지역(면적 3.6만km², 인구 1,450만 명으로 각각 라오닝성의 24.5%, 34.6% 차지)
- (발전목표) 대외개방 확대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연평균 15% 경제성장. 다롄을 동북아국제해운센터와 국제 물류센터로 육성
- (개발 방향) 동북진흥의 경제발전 중심축과 새로운 경제성장벨트 형성을 통해 연해와 내륙지역의 공동 발전 모색
 - 다롄에는 조선·정밀기기·공작기계를, 잉커우에는 제련, 판진에는 중소형선박 및 요트, 진저우에는 전자·석유화학·에너지, 후루다오에는 석유화학, 단둥에는 제지 산업 등을 도시별로 특화하여 육성

6)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6월 UN이 대북 결의안1874호를 채택하여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경제 제재 등의 실시

7) 동 개발계획은 현 공산당정치국상무위원인 리커창(李克強)이 2004년 라오닝성 당서기로 재직 시에 제기된 것임

□ 북한 체제 불안에서 오는 동북지역의 변방 강화 외에 장기적으로 간도(間島)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내포

- 동북지역 가운데, 랴오닝성을 제외한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은 내륙지역인데다 경제발전이 저조한 러시아의 극동, 북한 등과 접경을 이루고 있어 경제발전이 낙후
 - 동북지역의 교통축은 하얼빈시(哈爾濱市) - 창춘시(長春市) - 선양시(瀋陽市) - 베이징시(北京市) 또는 다롄시(大連市) 등으로 연결
- 이에 따라 헤이룽장성의 무단강(牧丹江)에서 두만강, 압록강을 따라 랴오닝성의 단둥에 이르는 동변도 철도(동북 동쪽변방도시를 연결하는 철도: 東北東邊道鐵道) 건설 추진과 함께 역내 경제발전을 통한 변방 강화 도모

〈표 7〉 동변도 철도 건설 계획

- (추진시기) 2006~2020년
- (실시구간)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의 무단강(牧丹江)에서 지린성(吉林省)의 투먼(圖們), 연지(延吉), 룡정(龍井), 허룽(和龍), 바이허(白河), 통화(通化)를 거쳐 랴오닝성(遼寧省)의 관수이(灌水), 단둥(丹東), 장허(庄河), 다롄(大連)으로 이어지는 1,389km에 이르는 국경철도
 - 이 가운데 허룽-바이허, 통화-관수이, 장허-단둥 구간 총 411km가 미 개통 구간이었었는데, 허룽-바이허 구간 103km를 2008년 12월에 완공. 현재 미 개통 구간은 통화-관수이, 장허-단둥만 남아 있는 상태
- (개발 목적) 소수민족지역과 변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안정은 물론 국방강화 도모

- 한반도가 통일된 국가로 모습을 갖추는 경우 간도회복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동변도 철도 건설 등을 통해 동북지역의 경제발전 추진
- 특히 옌룽투의 통합 시장화 추진을 통해 2020년 2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 변모시킴으로써 한국의 간도회복 의지 약화 모색

8) 간도란 우리가 만주로 인식하는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지역을 일컬으며 조선말까지 실효적 지배를 해왔던 지역임. 그러나 일제 강점기인 1909년에 일본과 청나라가 간도협약을 통해 일본이 만주의 철도부설권과 광산채굴권을 확보하는 대가로 만주지역을 청나라에 넘기게 됨에 따라 중국이 만주를 지배하게 됨

〈그림〉

중국이 추진 중인 동변도 철도



Ⅲ. 한국의 최근 대북 경제협력 동향

□ 비핵화 우선 정책으로 실질적인 협력 크게 축소

- 현 정부 들어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하면, 경제협력을 하겠다’는 ‘비핵개방 3000’⁹⁾으로 접근
- 이에 따라 식량, 비료 등 남북경제협력기금사업 지원이 2007년 7,157억 원에서 2009년에 1,000억 원으로 크게 감소

9)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등 5대 분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10년 내 북한 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 수준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대북전략

〈표 8〉 남북경제협력기금 사업 지원 현황

단위: 억 원

	2006	2007	2008	2009
사회문화교류 사업	127	86	66	30
인도적 사업	2,263	3,946	779	315
경제협력 사업	2,320	3,125	1,467	655
계	4,710	7,157	2,312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남북한의 대결구도로 관광 등 남북경협의 큰 줄기 중단 초래

-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남북한 철도 연결 등 남북경협의 3대 사업¹⁰⁾이 2008년 하반기에 중단되면서 통신, 통행, 통관의 3통 단절
 - '08년 3월에 북한이 당국간 남북대화 중단 및 당국자들의 북한지역 출입 금지 발표
 - '08년 7월 금강산에서 한국 관광객의 피격 사망에 따라 한국정부의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실시
 - '08년 11월에 대북 전단 살포 등을 이유로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통한 통행제한, 판문점 적십자사 연락대표부 폐쇄 및 판문점 경유 남북 직통전화 단절 발표
 - '10년 5월에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정부의 개성공단 현상 유지하는 것 외에 대북 교역·투자 전면 중단.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계속
- 개성공단에 입주한 121개 기업의 공장이 가동 중에 있으나, 남북간의 임금 인상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근로자 확보가 원활하지 못해 일부 기업들 정상가동 곤란

〈표 9〉 금강산과 개성 관광객 추이

단위: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11
관광객 수	268,420	298,247	234,446	345,006	199,966

주. 2008년 11월 이후 관광 중단. 해로로는 1998~2004년 동안 총 552,998명이 관광
자료: 통일부

10) '2009년 남북경협의 현황과 전망',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 이의 영향으로 북한으로의 반출과 투자도 감소 추세

- 북한에 대한 반출이 2007년 10.3억 달러를 최고로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8.9억 달러, 7.5억 달러로 감소

〈표 10〉

남북한의 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반 출	4.4	7.2	8.3	10.3	8.9	7.5
반 입	2.6	3.4	5.2	7.6	9.3	9.4
수 지	1.8	3.8	3.1	2.7	-0.4	-1.9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통계

- 북한에 대한 투자는 2007년에 98백만 달러, 2008년에 112백만 달러로 증가했으나, 2009년에 78백만 달러로 감소
- 또한 2006년 6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를 채택하고, 2007년 8월에 남북은 마그네사이트 36억 톤과 아연 3억 톤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함경남도 단천의 지하자원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진전 없음

IV. 향후 전망

□ UN 등의 대북제재조치가 강화될수록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중국의 투자와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 농후

-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자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투자 유치와 지역개발권 부여 가능성 증대
- 최근에 중국은 과거와 같이 북한에 식량, 석유, 비료 등의 원조와 같은 단순한 수혈(輸血) 기능에서 벗어나 투자와 개발을 통한 조혈(造血)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북 접근

- 중국 기업의 북한 진출을 통해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북한을 정치·외교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도 내포
- 한편, 금년 3월 10일 설립된 북한의 국가개발은행¹¹⁾은 대북제재로 인한 자금 조달이 제약받게 되어 재원부족으로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 농후

□ 북한의 계획경제체제 강화 등으로 인한 생산과 분배의 국가 관리로 인해 북한 진출 중국 기업의 시장 선점 가능성 더욱 커져

- 생산설비와 관련 자원 부족 등으로 북한의 생산차질이 불가피한 반면, 조혈기능을 앞세운 중국 기업의 생산 활동 증대 가능
- 중국은 동북지역에 비해 지리적 입지, 노동자 자질¹²⁾ 등 측면에서 북한의 비교우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 진출 모색
- 북한이金正은의 후계구도 강화를 위해 '09년 11월 화폐개혁을 통한 시장세력을 약화¹³⁾시키는 반면, 국가 주도로 생산과 분배를 실시하는 계획경제체제 강화에 나서고 있는 점이 오히려 조혈 기능을 내세운 중국 기업에게 독점적 시장지위를 내줄 수 있음

□ 사업 추진 주체로 볼 때, 중국은 지역개발 사업보다 당장 확보 가능한 자원개발 사업에 보다 적극적

- 무산의 철광석, 혜산의 동광, 용동의 무연탄 등 광산에 중국 국유기업의 참여로 이들 자원의 상품화 가능
- 반면, 위화도 및 황금평 개발권은 각각 민간기업(創立集團)¹⁴⁾과 컨설팅 기업의 진행으로 진척이 쉽지 않을 듯

11) 북한 국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책과 상업적 성격을 갖춘 주식회사로 북한정부와 대풍국제투자그룹이 각각 90%, 10%의 지분을 보유. 등록자본금은 100억 달러로 북한은 설립 후 2년 내에 납입 완료 천명

12) 북한은 11년 의무교육 실시(유치원 1년, 소학교 4년, 중고등학교를 통합한 중학교 6년). 반면, 중국은 법률로 12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학교 6년 의무교육. 다만, 농촌지역에 한해 9년 의무교육 시행

13) 북한은 최근 식량과 물자 부족 등을 이유로 식량배급 중단과 함께 장마당을 허용하는 한편, 무역기관에 속하지 않은 개인의 대 중국 무역도 장려. 연합뉴스, 2010. 6. 14

14) 동 기업 명칭은 인터넷에서 검색되지 않음

-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개발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데다 핵문제 해결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금의 회수 곤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측면 외에 국유기업을 내세울 경우 북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수 있음
- 다만, 나진항 사용권은 중국 동북지역의 해상수송로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개연성이 높음

□ 한국이 경제협력에 소극적일 경우 중국에 대한 지역 개발권 부여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 못해

- 북한이 중국 기업과 합작할 때, 통상적으로 북한은 안보를 고려하여 합작파트너에 대한 심의와 제한을 엄격하게 하는 한편, 북한 국영기업이 경영권을 장악하도록 하여왔음¹⁵⁾
- 그런데 북한이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될 개발사업에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재원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민간기업 등의 선정은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아닌 다른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 가능
- 이를테면, 북한은 중국 민간기업의 ① 자체적인 대규모 자금 조달, ② 대북제재 조치 하에 국유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 화교자본 투자 유치, ③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성과 정책 일관성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우려로 실제로 중국 민간기업에 의한 개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음

□ 결국 창지투의 경제발전이나 나진항의 해상수송로 확보 등의 가시적 성과는 한국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호응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 높아

- 한국의 대북 경제협력이 지지부진할 경우 체제안정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나진항의 해상수송로 급진전 가능
- 중국은 동해로의 해상수송로 확보를 ‘꿈의 실현’이라 표현할 정도로 북한에게 매우 유효한 카드를 쉽게 확보하게 되는 셈
- 또한 해상수송로 확보로 창지투의 경제개발과 발전도 탄력 받을 개연성 높음

15) www.sina.com.cn. ‘對朝投資的優勢與風險分析’, 2009. 7. 19.

□ 한편, 한국 기업의 창지투 지역으로의 전략적 투자로 조선족 동포의 구심점 역할 모색 필요

-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창지투 지역에 투자하여 조선족 동포 인력 증가를 통한 옌벤 조선족자치주의 기능 강화에 기여
 - 옌벤조선족자치주의 전체 인구 중에서 조선족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젊은 층의 도시로의 진출 및 한족과의 결혼 증가 등으로 매년 감소
 - 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중국정부의 2020년 옌룽투의 인구 200만 명 이상의 대도시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조선족자치주가 폐지되고 자치현으로 격하될 가능성도 있음